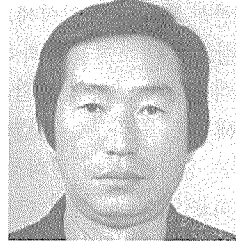


자기 분야에서 베스트맨 되자



李 敦 行

〈湖南精油 운영부 직산저유소 반장〉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는 나의자세」

정유회사에 근무한지 벌써 19년째 되었고 머지 않아 20년이 되는 시점에서이다. 결코 짧다고 말할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갔다고 이야기 할수 있다. 젊은 청춘을 다바쳤으니...

정말 열심히 살다 보니 장년기란 시간속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뭐 하나 제대로 성취한 것 없이 덧없이 흘러간 세월인것 같다. 그렇지만 지나간 세월이 아쉽더라도 절대로 후회할 필요도 없고 또 후회할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공자님 말씀에 「후회는 항상 늦다」고 했다. 그러니 다가올 희망차고 알찬 시간들을 맞이 할 준비를 해야겠다.

세월은 정말 빠른 것이라고 요즘 느껴질 때가 많다. 삶 자체에도 빠른 시간의 흐름이 있듯이 요즘 기업 의 상황변화는 삶 자체 못지 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빠른 템포로 변화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룹회장님의 경영이념선포,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21세기에서의 PASESETTER로 성장, 등등... 수많은 경영혁신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수용하며 변혁을 일으키고, 개선·유지 해야만 기업이 살아갈수 있는 시점에서있다고 본다. 내가 호남정유에 입사

하여 기름이라는 분야와 먼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 했다고 생각된다. 3년전 직무 재배치에서 이곳 저유소에 근무를 하고 있다. 물론 조직속에서 생활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충실할수 있는 자세가 각자의 직분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기름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어서인지 15년이 넘어서야 소망(?)을 이루었다고 나 할까?

직위재분류후 새로운 부서에서 서투고 부족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남보다 더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렇다고 지금은 뭐 다 배웠냐고 묻는다면, 아직도 멀었다고 대답을 할것 같다. 일이 서투다고, 부족하다고, 조직사회에서 냉정하게 판단 한다면 대강대강 지나갈수 없지 않았는가?

새로운 세계에서 도전이란 것을 생각치 않는다면 개인의 발전은 이루어질수 없고 그 발전이 없다면 가정, 조직,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고 믿는다. 난 늘 도전하는 입장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의지와 행동이 일치할수 없는 순간이 많기에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원망해 볼때도 많다.

호남정유에 입사하여 젊었던 그 시절은 정말 가정은 둘째요 회사일은 첫째였었다. 늘 회사가 요구하는 것에 부응했고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었으리

라.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보람된 삶이었고 아마 그시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의 가치관이 그러했던 것 같다.

이제 세월이 많은 변화를 가져와 그때와 같이 일하려면 못할것 같다.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가치관의 변화 또한 많이 변했다. 현시점에서 그러한 변화를 수용할수 없다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느껴진다. 가끔 업무에서 그때의 사고방식으로 일 하려면 동료들과의 의견이 틀때가있다. 처음에는 왜 저럴까? 그것이 아닌데... 여러면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았으나, 그전의 생각을 그대로 적용했을때의 대립이란 여파가 더 커질 뿐이었다.

溫故知新이란 고사성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 옛시절의 좋은점은 채택하고 많은 변혁의 시대에 살고있는 요즘 그 변혁에 맞추어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유업계의 현상황은 옛날의 태평성대의 시절에 비해 많은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자유화 이후 정유사간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위기감마저 느껴지고 적자생존의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늘 잘 될 것이라는 시대는 지났지만 결코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항상 도전하는 자세, 생각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내가 근무하는 부서가 직접 영업하는 곳은 아니지만 영업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늘 나의 직무는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어느 회의석상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BEST MAN이 되자」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그 분야에서 최고, 조직에서, 나라에서, 세계에서 최고가 됐을 때 개인적인 성취감과 더 나아가 기업에 기여하는 성취감은 클 것이다.

인생은 결코 길다고 생각할 수 없다. 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욱 짧다고 본다. 그냥 덧없이 흘러갈수만은 없지 않은가? 조직내에서 자기 직분에 충실히 수행을 하노라면 개인의 성취감은 점점 증대 될 것이다. 한편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업무수행을 한다면 조직사회에서 공동목표를 저해할 소지

가 있으므로 주의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 아니면 누가 나 대신해서 하겠지... 하는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냉정히 말해서 나의 견해로는 나의일을 남한테 미루고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들은 경쟁사회에서 도태될수 밖에 없다고 본다. 사회와 조직생활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이겠지만 나태와 게으름의 행동은 사회나 조직이 용납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은 얼마나 완벽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하기에 이 글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제는 조직생활에서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더 짧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정중하고 뜻있게 맞이하지 않는다면 시간들이 다시

난 후에는 정말로 후회할수없는 참담한 순간을 맞이 할것이 분명 하기에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다짐과 설계를 해 본다.

첫째, 조직생활에서 현위치에서 Best Man이 되고자 노력하며, 둘째, 가족에게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화목한 가정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할 것이며, 셋째,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 봉사해야겠다. 사회봉사란 거창하고 금전적인면 보다 소의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미력한 나의힘을 기도하는 자세로 봉사해보고싶은 심정이다.

보잘것없는 생각이지만 나 자신에게 맹세하고 그것을 실천 했을때 그때가서 정말로 참담한 순간이 되지 않을것 이라고 확신하며 다짐해 본다. ♣

악어와 악어새- 아내에게



金勳

〈유공 Complex 아로마틱 생산1과〉

가을 산 그늘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무언가 향기 할 수 없는 옹골찬 힘. 발목이 푹푹 빠지는 낙엽더미 속으로 들어서면 그 힘은 결실이라는 실체를 드러내며 나를 젖게 한다. 영글어 터진 과실. 빛 고운 활엽수림들 그사이 통통히 살 오른 작은 짐승들의 유희 아! 바라보는것 만으로도 향기가 느껴지는 정취. 그러나 멀지 않아 이 계절도 가고 또 다시 비상하기 위해 안으로 잘 갈무리된

웅크림의 계절이 오리라! 이렇듯 반복되는 생성의 순리 속에서 열망의 순환 눈매를 지닌 나의 아내, 그대와 함께 오 늘은 우리의 부부록을 위한 노래를 준비하나니.

가벼워지자 우리. 가슴에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의 난간, 그 어드에서 어느날 서로를 밀쳐 추락하게 하여도 가벼이 비행하는 새 되어 다시 금 서로의 가슴에 깃털처럼 부드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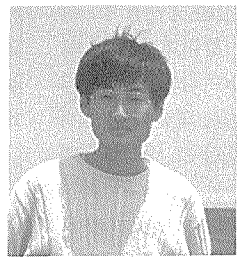
머물게 공기방울처럼 가벼워지자 우리. 민감해지자 우리. 깊은 밤의 고요 속에서 얇은 신음의 고통 소리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침묵으로, 가장 낮은 옥타브의 떨림으로, 면도날처럼, 스킨로션처럼 민감해지자 우리. 끈끈해지자 우리, 날마다 준비되는 깨끗한 속옷의 느낌으로도 때로 충분히 대비되지 못할 칙칙하고 어두운 삶의 질곡 속에서 말없이 또 한장의 손수건을 챙겨 건

네 주며 손 잡는 모진 눈물 감춤으로 더욱 정겹게 불 밝혀 껌처럼, 본드처럼 끈끈해지자, 우리 새로워지자, 우리 커다란 맹세에 숨막혀 힘들어 하기 보다, 작은 사랑의 순간 순간에 깡충거리며 기뻐 신기워워 하는 새로운 발상법 - 아! 하는 감탄사 -, 으로서로에 가만히 눈에 가며 열리는 세상, 열리는 골목의 축수, 낮은 가로등 불빛처럼 묵을수록 더욱 신기하게 빛나며 일어서리니 흡사 발명품처럼, 새 생명의 울림처럼 새로워지자. 우리 차가워지자 우리, 두 눈 가득 먼나라의 슬한 얘기를 담고서 인주 빛 전화통에 기대어 발 구르는 시간 어느 한 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의 지친 어깨를 어김없이 찾아내고 맨발로 뛰어 갈 줄 아는 언제든 뜨거워지기 위해 담금질 잘된 쇠처럼, 칼처럼 차가워지자, 우리 자유로워지자, 우리 벗은만큼 자유로워지기 위해,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아름다운 구속을 기꺼워 했던 어느 詩人의 잘 정돈된 의미처럼 날마다 벗은 채로, 입히기 위해 자유로워지자, 우리, 새벽 바람이 차다. 바람 때문에 샷시 문이 덜컹거리며 떨고 있다. 이렇듯 새벽에 가끔 잠 깨어 휘둘러 보면 깊은 적막속에서 잘 정돈된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대낮엔 느끼지 못하던 많은 것들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음을 바라볼수 있기 때문이다. 깨어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간은 성숙해 지겠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인간인가? 아직은 그 물음에 스스로 「노」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 대부분의 경우 나란 인간은 지극히 게으르고 또한 단세포적인 탓에 깨어 생각하기 보다 많은 부분에서 포기라는 말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순간에 나는 어느새 내 모습이 젖어 잘 흐르는 역동적 의미의 江이 아닌 굳어 바닥을 누렇게 드러내며 짝짝 갈라진 가뭄의 江바닥. 그 속에서 흡사 두꺼비 피부같은 정체성의 한계를 본다. 그것은 곧바로 아내인 그대에게로 옮겨가고 스스로의 무게에도 힘들어 할 수 밖에 없는 또 한명의 인간인 그대의 江바닥을 초토화 시키지는 않았던가. 떠나도 다시 돌아올 고향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향에 이제 무엇을 남겨 놓을 수 있겠는가. 갈라 터지기 전(前)의 그 논바닥에 우리는 예고된 풍년을 심어 놓고 때로 다름이라는 江 저편 아득하고 미지의 세계에 닳을 내리는 모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공기방울처럼 가볍기에 또한 멀리 날라 가지 않은 채 머물고, 스킨오션처럼 민감하기에 상대의 눈빛 하나에도 섬세하게 반응하며, 본드처럼 끈끈하기에

온갖 풍파 속에서도 튼튼한 여유가 되고 새 생명의 울림처럼 새롭기에 작은 것을 오히려 더욱 소중히 생각할 줄 아는 사랑스러움 칼처럼 차갑기에 또한 뜨거워지는 순간을 포착해내는 예지.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고향 江가에 예비해 두어야겠지. 그러면 어느 한 날 우리는 성숙한가요? 라는 물음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기겠지. 백일 지난 딸 유경이가 울고 있다. 우리의 민방위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이다. 들중의 한명 혹은 둘 모두가 뛰어야겠지, 저 아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악어와 악어새 사이에 끼어든 작은 음식 찌꺼기 혹은 둘 모두의 젓줄인 江이거나 나무 때론 공기 그 자체일 지도 몰라. 새로운 신선함의 자극으로 한 배를 탄 우리들의 안전운항을 위해, 나는 튼튼한 노와 구명정. 나침판을 준비하고 또한 스스로 눈빛 살아있는 뱀사람이 되리. 아내인 그대는 무슨 눈빛으로 저 바다를 응시할 것인가. 새벽 바람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급기야 거칠 바닥을 휘둘고 있다. 공존의 가장 가까운 무리들인 우리의 호흡기를 위해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내 손 끝속에서 잠들어 있는 여우 하나 토끼하나. ♣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회고록



石光億
〈쌍용정유 연구개발부 품질관리실〉

아침 저녁으로 달리는 차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은 그렇게 빠를 수가 없다. 어둡고 긴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먼산위에 피어나는 개나리와 진달래를 벗삼아 출근길을 서두르다 보면 어느새 개나리의 환한 미소는 아쉬움을 남기고 사라진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아스팔트위로 떨어지고 무섭게 몰아닥치던 폭풍우도 잠재우고 낙엽이 떨어지고 먼지 일었던 대지위로 스며드는 가을비를 다시금 기다린다.

나의 몸과 마음을 사회라는 열차에 실은지 어언 3년...

푸른마음과 맑은 눈을 가졌던 젊음이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길다면 정말로 길었고 짧다면 정말로 짧았던 벅찬시간들이었다.

조그마한 공간, 그곳에 존재하는 서열, 그리고 낯선 이방인들의 눈 처음으로 부딪치는 새로운 일들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명에었던 시절, 하루의 희망이 이들의 실망을 낳았고 밝은 웃음뒤엔 힘겨움이 뒤따랐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 만큼이나 실망도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의 터널이 결코 즐거움

만이 계속된 것은 아니었으나 돌이켜보니 어렵고 힘들었던 일마저도 즐거운 추억과 밑거름이 되어 한결음 한결음 다가온다.

「아차」하는 순간 「쨍그렁」 비이커 깨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 폭음으로 내 마음속에 자석처럼 부딪칠때의 그 오싹함.

온도가 너무 올라가 고약한 냄새와 자욱한 연기가 솟아오르고 인화점이 지나버린지 오래되어 번건불이 용솨음쳐 안전부절 당황하면서도 주위사람들에게 미안함에 진짜로 쥐구멍이라도 있을 머리라도 쑤셔 박고 싶은 심정.

한참 실험하고 있다보면 동료직원들의 웃음소리.

무언가 하고 살펴보면 어느새 작업복 바지에는 구멍이 뽕뽕.....

이런 모든것들이 미운정, 고운정이 라고 할까?

아뭏든 이런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채워질 즈음 난 알았다.

조금이나마 사회를 이해하는 마음.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픈 마음.

우리사회의 발전에 작으나마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나 자신의

의미를 찾을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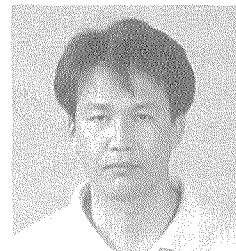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느끼는 즐거움이랄까 아님 보람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항상 서로 인화단결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대화하고 의논하고 토론하여 보다 진보적이고 앞장서 나가려는 의욕을 느끼고 지혜를 짜내고 짜내서 규모있고 조리있게 연구하고 검토해 좋은 데이터를 얻고 서로 서로 만을 없어도 일체감속에 흐르는 공감성을 느끼고 상사로부터 격려를 받을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시 한번 내직업에서의 직업적 열애와 직장에서의 내수고와 성실의 정도가 어떠했는가 돌이켜 본다.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영롱한 진주는 오랜세월의 바람과 파도를 맞으며 그빛을 발한다』고 하는데 직업에서의 오랜 반복이 가져다 준 능숙함, 익숙함에 자만하여 항상 신입사원의 의욕과 사명감, 성실성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데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반성하며 『따르릉 품질관리부 석광역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전에 출발의 시동을 건다. ♣

不出의 변



洪寅錫

(극동정유 대산공장 자재관리부)

불출 - 국어사전을 들춰보면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이라는 해석이 붙어있다. 그러나 흔히 아내, 자식 자랑을 하

거나 시쳇말로 공처가라 불리는 사람들을 을 비하시키기 위한 말로 통용되고 있

다.

도포자락을 날리며 휘적 휘적 팔자걸음을 옮기고 있는 남편의 한 발자 뒤에서 아이 하나는 들쳐 엮고 한 아이는 걸리며, 머리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종종 걸음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사극 영화나 옛 사진 혹은 어린시절의 기억 속에 봉건시대의 희극적인 유물로 우리에게 인각되어 있다.

또한 우리네 어머니들의 울음과 한탄 소리에는 가슴의 응어리와 한을 삭이기 위한 가락과 곡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불출이라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비웃음을 받지 않기 위한 사내들의 횡포에 대한 갈등의 산물이라면 지나친 발상일까? 착취와 일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 그 주된 원인이겠지만 남존여비, 여필종부라는 여자를 소유물로써 취급하던 그 시대 사내들의 인격유린도 분명 한을 극대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으리라 싶다.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반비례하여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붕괴가, 대 가족에서 핵 가족으로, 집단에서 개인으로 사회체제가 변화하고, 정신 우선주의에서 물질을 통한 힘의 우월주의로 가치체제가 흔들리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팔불출」이라는 봉건의 편린이 곳곳에서 숨쉬고 있었다.

그러나 2차 산업으로의 경제변화를 주도했던 세대가 3차 산업으로 치달는 신세대에게 일선을 물려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가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월급봉투가 명세서로 바뀌고, 내용물은 통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아내들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다보니 「뺑뺑」이라는 스틸의 묘미를 차압당함은 물론 사소한 비용까지 시시껍철한 변명을 주워 삼키며 손을 빌려야하는 우스꽝스런 신세로의 전략-힘은 돈에서 나온다는 현대사회의 병리역학적인 현상이 불출의 과도한 양산을 가져온

결과 때문인지 모른다.

사락 사락 비가 뿌리는 날, 하늘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깊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날, 소주 한 잔이 간절해지는 퇴근시간에 끼리 끼리 무리를 지어 작당을 하여 선술집을 찾던 풍정이 어설피 酒道를 핑계로 뽀뽀이 흠어져 귀가를 재촉하는 모습으로 바뀐 요즘의 세태는 예전의 시각으로 재어보면 영락없는 불출의 시대이다.

中國 제 나라때 어느 재상이 술 마시는 방법을 9단계로 나누었는데, 가장 맛있는 9품은 상사나 옷 어른과 마시는 부복술이고, 선술집에서 여럿이 떠들며 마시는 술맛이 6품, 자기집 안방에서 혼자 마시는 독작이 3품이고, 풍광을 찾아가다며 마시는 독작이 1품이라고 했었던가? 그렇다면,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비의 한기를 피부 깊숙이 숨털이 일어서도록 박아가며, 비 들는 자연의 소리를 가슴으로 들으며, 아내의 애정이 넘쳐나는 빈대떡의 향내를 한껏 들어마시며, 아직은 처녀적 싱그러운 물기가 남아 있는-그래서 가끔 내 충동의 불꽃을 지피는 아내의 어깨를 살며시 안고, 시·청·후·축·미각이라는 인간의 오감을 동원하여 사랑이 녹아 든 소주잔을 기울이는 나의 술버릇은 과연 몇 품이나 되려는지...

2차를 외치는 동료들의 유혹적인 손짓을 뒤로하고, 달빛에 바랜 어둠이 잔잔하게 흐르는, 이런 가을 밤이면 석류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골목길을 갈지자로 걸다가 시원한 방뇨와 함께 별이 가득히 흐르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파트 내 닭장의 창문이 노랗게 밝혀져 있는 것을 발견한 때의 행복감과 아내와 함께 백일이 얼마남지 않은 그래서 그저 신기하기만한 어린 생명을 따뜻한 물로 씻기며, 파닥이는 아이의 고동을 미열같은 아이의 체온을 손끝에 부딪쳐 부서지는 미세한 호흡의 파장을

감지할 때느끼는 감각은 "불출"이라는 비아냥을 뒤로 한 댓가를 넘치게 받고도 남음이 있다. 자상하지도 그렇다고 너그럽지도 못한 나의 품안으로 그래도 애비라고 함박웃음을 터뜨리며 달려드는 네 살 박이 아들 녀석을 숨막히게 안아주며, 조금씩 잘잘못의 이치와 지혜를 깨닫고 익혀가는 녀석의 수 없는 질문에 답하는 즐거움. 프리자와 장미 몇송이에 안개꽃으로 치장을 하고, 몇자 앞뒤 문구는 통하지 않지만 애정을 담은 편지를 넣어 꽃바구니를 보낸 아내의 생일날, 대문을 여는 아내의 얼굴은 그대로 장미 한송이. 저녁 식사후 마주앉아 가볍게 술잔을 드는 아내의 눈빛은 더 없이 뜨겁게 타고, 이런 내밀한 기쁨은 통 큰 사내들이 결코 맞볼수 없는 기막힌 만남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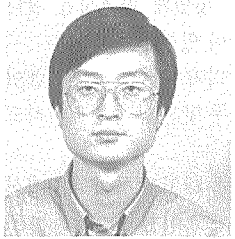
스물 일곱 해 일기장 갈피에
고운 꿈 끼워두고
아내라는 낯 선 이름으로
내 앞에 선
당신
중략
삭풍이 스쳐 간
잠든 당신의 얼굴을
아미에 깃든 구름자락을
깊은 밤
홀로 깨어 바라보며
바람
바람 소리 듣는다.
가슴을 치고
밤을 하얗게 빛어 낸들
어드메서
당신의 빛나던 꿈의 자락을
건져 올릴 수 있겠는가
단지 내 더운 가슴으로
아이들의 맑은 눈으로
당신의 어깨를
가만 가만 안을 수 밖에
중략
당신을 안으면

아아
가슴 가득 흐르는
프리자 향기
중략 ……
나의 절망을 딛고
나의 방향을 묶어
황량한 내 심리에서
꽃으로 피는
아내여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오늘,
오늘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큰 기쁨으로 충만 하소서
Happy birthday to you!! (아내의 서
른 한번째 생일에)
보석같은 아이들과 장미같은 아내 -
바로 자꾸 왜소해지지만 하고, 순간 순
간 벽에 부딪쳐 절망하는 나를 버텨주
는 지춤패이고, 나날을 윤기있고 활력
있게 만드는 샘이다. 행복을 단계 별로

나눈다면 이 불출의 기쁨은 과연 몇 폼
이나 될까?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
의 혼돈의 시대에 나는 나의 가정과 내
가 소속된 사회에서 불출이 되고 싶다.
조금은 어리석고, 조금은 허술한, 그래
서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행복을
행복으로 읽으며, 작은 친절에 진정한
감사로 답할 수 있는, 이기와 독선과 생
활의 아귀다툼에서 조금쯤은 떨어져 있
는 그런 불출이 되고 싶다. ☹

멋과 여유



洪萬儀

(京仁에너지仁川공장 관리실 대리)

둘째 왕자 방원이 말했다.
『이런들 어때하리 저런들 어때하리
만수산 드렁칫이……』

그러자 포은선생이 이렇게 답했다.
『이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

왕조가 바뀌고 권력이 이동되면서 정
적을 축출해 내던 격동기에, 막강한 힘
을 지니고 있던 방원왕자의 문(問)과
자신의 지조를 지키며 죽어가고자 했던
포은선생의 답(答)이 무려 육백여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이렇게도 「멋」과 「여
유」를 가르쳐 주고 있다.

멋과 여유라는 것에 대해 요즘을 가
끔씩 생각해 보는데 잘 잡히지는 않지
만 조금씩 생각날때 마다 정리해 보곤
한다.

근래들어 광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 바로 멋과 여유인듯 하다.

이것을 강조한 광고가 의류, 자동차,

음료등 모든 방면에서 부쩍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멋을 부리려
에쓰며 살고 있고 또 다른멋진 사람들
을 모방하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멋이란 무엇일까?

멋은 지극히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
다. 멋은 보는 사람들이 느낀대로 평가
해 주는 것이면서 그 느껴지는 멋이란
보는 사람들 자신의 눈에 있는 「모자
철학」으로 가늠하기 때문이다.

멋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
는데 「모자철학」의 가능자에 따른 상대
적인것과 절대적인 그것이다.

학교 다니던 시절 같이 공부하던 어
느 여학생에게 들은 말이 생각난다.

여러 남학생들이 그녀에게 자신의 가

장 멋진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만나보면 괴상한 벽을 가진 괴물이거나
한두가지 특별한 점을 빼면 아무 것도
할줄 모르는 어린애로 밖에 보이지 않
는 상대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생각해 보면 친구들 사이에 「멋진물
건」이라고 통하는 녀석들은 다른 사람
이 흉내 낼수 없는 독특한 성격이나 특
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부러움으
로 비쳐질수 있고 그것이 여럿의 공감
대를 형성하게 되면 그 친구는 「멋진녀
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떠올려
보면 부러움 보다는 그저 유별났던 친
구로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바로 이런
것이 상대적인 멋의 전형이라고 생각된

다.

자신이 할수 없는, 그래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부분의 것을 남보다 잘 해내는 상대에 대한 부러움이 그것이지만, 이는 세월이 지나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 변하게 되면 한낱 기억거리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멋에는 변함이 없다. 육백여년전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자의 입장에서 사람을 얻고 자 하는 욕심을 은근한 비유를 통해 드러낸 何如歌의 여유가 좋고, 곧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 험악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서도 志士의 끈은 절개를 깨끗하게 나타낸 丹心歌의 멋이 좋다.

이 밖에도 멋있게 한세상을 살다간 많은 선인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웅이나 위인들이 모두 멋진 삶을 산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오히려 남을 해치고 침략하여 자신의 권력을 크게하고 이름을 떨치려는 조급함만이 드러날뿐 여유라고는 볼수 없던 영웅들이 많다.

이렇게 거창한 멋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멋진 사람들을 볼수 있다.

늘씬한 몸매에 예쁜다리를 적절히 표현해 내는 짧은 스커트의 미인도 멋있어 보인다.

쉬운 과외수업을 마다하고 힘든 노동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세상을 배우는 대학생들도 멋있어 보인다.

평생을 학문에만 정진해 오신 맑은 눈빛의 노교수님도 멋있어 보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자신의 노래에 몰입하여 열창을 하고 있는 가수를 봐도 멋있어 보인다.

교외에서 캔버스를 세워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미술가도 멋있어 보이고, 커다란 흙터를 치고 뛰어들어오며 양손을 번쩍 치켜드는 야구선수도 멋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참다운 멋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유이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일지라도 그 자체에 여유가 깃들어 있지 않으면 천박하고 조급한 한갓 욕심의 충족을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면 멋이라는 정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유란 과연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그것은 「自身에 대한 自身感」이다.

남의 눈을 두려워 하지 않는 마음, 타인의 자기에 대한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오로지 나자신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여유인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다

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여 자신에 대한 욕심이 채워지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물론 자신에 대해 매우 관대한 사람도 있고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타인들이 볼때에는 탐탁해 보이지 않는 멋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멋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야 하는데 틀림없이 멋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말이 되어 혼란스럽다.

그러나 그 답은 간단하다.

욕심이 적으면 된다.

단 몇가지만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면 보다 쉽게 이룰수 있다.

이것 저것 모든 것이 통달한 팔방미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평범한 우리에게겐 힘들뿐 아니라 흥내나 내는 잔 재주꾼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다.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이들, 깊이 있는 자기 분야를 개척하고 정진해 나가는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행복한 삶'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한다. ♣

